독어학 분야의 웹 출판

정문용(동의대)

1. 서론

학문 발전을 위해서 학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며 이 소통은 지금까지 대개 학회활동, 다시 말해서 학술대회나 학회지 논문 발표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인터넷이 우리의 학교나 학문 울타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의사소통은 전자매체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선 전자메일이 일상화되면서 학회 소식이나 개인 상호간의 소식은 물론 학술적인 문의나 토론도 이를 통해 훨씬 더 쉽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학술토론을 위한 전자 화상회의도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학회나 연구단체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학술대회나 연구과제들을 공지하고 있으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이나 학회지 과월호에 실린 논문들을 홈페이지[1]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학회지를 출판하는 외국의 주요 출판사에서도 자신들이 판권을 갖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과 여러 정보들을 대학 도서관을 통하여 개인 독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 학술지 자체도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3] 교수나 연구자

1) 본 학회의 홈페이지 http://kds.german.org.kr 에 접속하여 논문집 메뉴를 클릭하면 지난 호의 논문들을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독어독문학회의 홈페이지 http://www.kgg.org.kr에서도 전자문서화된 방대한 양의 논문들을 주제별, 혹은 저자별로 검색하여 읽을 수 있다.

2) 이러한 시도 중 하나는 TULIP(The University Licensing Program)이다. 최대의 전문학술잡지 출판사인 Elsevier와 미국의 9개 대학이 수행한 논문 공급과 잡지의 사용에 대한 시험 프로젝트이다.
http://www.elsevier.nl/homepage/abpout/resproj/tulip.shtml
국내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에서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4]들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문적 탐구활동을 알리고 다른 학자나 학생들과의 의사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90년대 중반부터는 온라인 상으로만 발행되는 전자잡지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또한 독일의 대학 도서관은 자료의 전산화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정한 분야의 서지 정보들을 정리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5] 학위 논문들을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연구 업적들을 큰 수고와 비용 없이 온라인 상으로 읽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여러 도서관이 연계하여 특정한 분야에서 전자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학술활동과 연관된 검색엔진[6]도 개발되어 특정 학문의 관문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문연구에 있어서 전 세계적 동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연구 결과물의 유통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 빨리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인터넷 웹(WWW) 상의 독어학 관련 전자 출판물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 소개이다. 전자잡지와 학위 논문 등 여러 연구 실적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웹 출판[7]을 검토해 보고 내

---

3) 학술지 "Deutsch als Fremdsprache"도 200년 10월부터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발행잡지의 목차, 다음 호의 발행계획, 논문과 초록 검색(1991년-) 등이 가능하다.
http://www.uni-leipzig.de/daf

4) IDS의 Angelika Storrer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강연회 원고나 학회지 발표논문 등을 내려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http://www.ids-mannheim.de/grammis/storrer/evortrag.html

5) 어문학의 잡지에 관해서 Braunschweig 대학 도서관 사이트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http://www.biblio.tu-bs.de/CoOL/list/sub/zfach-sl.htm

6) 일반적인 검색엔진 외에 학술문헌 검색을 위해서는 http://llek.de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며 매우 빠르다. 언어학 검색을 위해서는 다음 홈페이지 참조.
http://llek.de/deutsch/thematisch/geistesw/linguistik.htm

7) web 출판과 비슷한 의미로 전자출판, 온라인 출판 네트워크 출판, 인터넷 출판, 전자 출판, 가상 공간 출판 등 비슷한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각기 강조하는 바에 따라 수식어가 달라진다. 이에 대한 참고문헌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 참조.

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독어학계의 연구자료 수집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자연과학 뿐 아니라 인문과학 분야 연구[8]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이제 완전히 중요한 연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외국어문학 연구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독어학습을 위한 많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으며 독문학[9]이나 지역사정을 위한 관련 문헌도 이제 한 눈에 살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 독어학이나 언어학 연구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다양한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연구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10] 우선 2장에서는 웹 출판의 여러 형태를 나누어 보고 웹 출판과 종이 출판을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독어학 분야의 웹 출판물들을 살펴보려 한다. 독어학은 물론 자연언어인 독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지만 일반 언어학과 관련되어 연구되므로 일반언어학의 연구 성과물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응용언어학의 일부로서 외국어교수법, 외국어 학습도 이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

http://info.lib.uh.edu/sepb/sepb.html

8) http://www.ach.org(Association for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http://www.princeton.edu/humanist/index.html(전자 세미나)

9) 인터넷 상의 독문학을 위한 많은 자료와 연구 방법 등을 다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http://computerphilologie.uni-münchen.de/
http://iasl.uni-münchen.de/discuss/lisforen/erlangen.htm
(Literaturwissenschaft online-offline)

10) Ulrich Schmitz:Neü Medien als Arbeitsinstrument der Linguistik, in:
http://www.linse.uni-essen.de/papers/ids/arbeitsinstrument.htm
Gabriella Hima:Wissenschaftliche Darstellungen und Forschung im Zeitalter des Internet(http://www.adis.at/arlt/institut/trans/6Nr/hima.htm
소만섭, 컴퓨터에 의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독일의 인터넷언어자료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7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0.
졸고(1999)에서 독어학 연구에 있어서의 인터넷 활용을 기술한 바 있다.

2. 웹 출판의 형태

2.1. 웹 출판의 정의

웹 출판은 종이 출판이 아닌 웹을 이용한 출판을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효용성, 정당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11] Kling, Rob/Makim, Geoffrey(1999:891-2)에서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견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종이 잡지와 병행하여 출판사와 기관에서 만들어 웹 상에 올려 두는 전자판 잡지
2) 단지 네트워크 상에만 존재하며 접속한 개인들에게만 배부되는 패키지화된 출판물
3) 서버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잡지처럼 패키지화 되지 않은 것도 포함되는 모든 문서들의 총체.
4) 자신이 스스로 편집, 출판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의 총체.

순수한 의미에서의 전자잡지는 "edited package of articles that is distributed to most of its subscribers in electronic form"(Kling &Mckim 1999:891)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2)와 3)의 영역에서 독어학 관련 출판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

11)웹 출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이중에서 다음 홈페이지에는 Stevan Harnad, Hal Varian, Bob Parks 가 벌인 논쟁이 실려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보면 웹 출판에 대한 많은 정의 상의 문제가 있으며 학문 분야별로 서로 상반된 견해가 표출됨을 알 수 있다.

http://culturemachine.tees.ac.uk/frm_f1.htm

http://amsci-forum.amsci.org/archives/september98-forum.html

2.2. 출판 형태

홈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출판 형태이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웹 출판을 전자잡지, 학위논문과 보고서 출판, 전자우편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전자문서는 그대로 수용한다. 또한 이러한 전자문서의 특성을 전자잡지도 그대로 보유한다. 전자잡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종이 잡지처럼 매진되어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없다[12]. 동일한 자료의 복제 가능성은 거의 무한정이다.
2) 잘못된 부분을 즉시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문서 자체에 다양한 변화[13]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증보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3) 종이 잡지를 만드는 것 보다 비용이 절감된다.[14]
4) 출판 진행 속도가 빠르며, 출판 된 후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5)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바로 나의 구독 잡지가 된다.[15]

---

12)이에 대한 예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전자문서화 됨으로서 오래된 자료가 다시 널리 읽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Vannevar Bush의 "As we may think" (1945년, The Atlantic Monthly 176권 1호)가 다음 홈페이지와 Linse에 실려 있다.
http://www.theatlantic.com/unbound/flashbks/computer/bushf.htm

13) The Edge:The e-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97년 12월 창간) 에서는 living document를 주창하면서 논문에 대하여 반응을 요구한다. 독자의 피드백과 이에 대한 원저자의 반응을 한 논문에 계속해서 첨부하는 형식을 추구한다.
http://www.hart-li.com/biz/theedge/

14) 이에 대해서 Malcom Getz 가 쓴 An Economic Perspective on E-Publishing in Academia, 1997. 참조.
http://www.press.umich.edu/jep/archive/getz.html
(The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5)물론 사용자 인증을 거치는 잡지도 있다. 그러나 우리와 교류가 많지 않은 전 세계 잡지의 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독립국가 연합의 전문잡지를 읽을 수 있다.

6) 하이퍼미디어를 통하여 다른 부가적인 정보와 지식, 혹은 멀리 떨어진 곳의 관련 지식정보도 클릭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16]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인터넷의 자료는 고정적이지 않고[17] 자주 변할 수 있으며 일회적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원저작자를 밝히지 않고 쉽게 변모된 형태로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2) 종이 잡지처럼 손으로 간단하게 글 메모하기가 모니터 상에서 불가능하다.
3) 종이 잡지는 한 번만 훑어봐도 전체 내용의 파악이 쉽고 여러 곳에서 여러 자세로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모니터 앞에서 고정된 자세가 요구된다.
4) 도서관 잡지 서가에서는 간단히 어느 곳에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전자잡지의 경우 여러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브라우저 상에서 복잡한 단계를 거쳐 들어가 찾아야 한다.[18]

---

http://fccl.ksu.ru/(Web Journal of Formal, Computational & Cognitive Linguistics)

16) 다음에서는 전자문서의 특징인 hypertext 기능을 이용하여 Lacan-Archiv Bregenz로 연결된다.
http://www.t0.or.at/~kdobl/diss(Klaus Doblhammer의 Frükindlicher Spracherwerb im Lichte des Psychoanalyse Jacques Lacans)

17) 내용상의 변경 뿐 아니라 웹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주소의 변경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으로 옮겨가게 한 경우도 있지만 영영 사라져버리는 홈페이지들도 있다.
http://www.ub.fu-berlin.de/~goerdten/germref.html==>
http://www.ub.fu-berlin.de/internetquellen/fachinformation/germanistik/

18) 검색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다음 사이트에서는 다른 곳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모아 두었으며 상이한 학문분야를 통한 통합적 검색도 가능하다. 각 논문 아래 resource location을 클릭하면 원래로 연결된다.

5)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단지 홈페이지만 만들어두고 누구나 쉽게 완전히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곳도 있다.[19] 뚜렷한 발행 주체가 없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개된 경우는 그 지속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20]

학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전자잡지처럼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곳에 자신의 논문을 출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잡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곳에서 여러 관련 학회와 연관시키거나 많은 발행자를 두거나[21] 세계적인 학자들을 심사자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많은 출판사에서 온라인 잡지를 연말에 가서 종합하여 종이 잡지로 출간하여 보관하기도 한다. 전자잡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종이잡지로 만들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 컬러 인쇄화, 도표, 동영상, 최신자료 등이 전자잡지 상에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논문으로서의 인정 여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엄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자문서의 형식과 정형화 방식에 대한 견해도 수렴되어야 한다.

Takeo Yamamoto(1997)에 따르면 전통적인 종이 학술잡지의 세 가지 특성인 visibility, immutability, longevity의 특성을 전자잡지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전자도서관에서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http://www.realsci.com/

19) http://www.linguist.de와 같이 일반 언어학 분야의 논문 집합장소를 표방하면서 학기말 과제나, 자격시험논문(Examensarbeit)를 무료로 출판 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질적인 통제는 자정기능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20) 유럽 시사 웹진인 "베를린 천사"(http://www.berlin1004.com)의 경우 99년 9월 1호가 나온 이래 유럽의 다양한 정보를 웹 상에서 전해 왔지만 2000년 6월의 10호를 마지막으로 지금 휴지기에 들어가 있다.
(http://berlinreport.com/1004/00/10/main.htm참조)

21)매체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위한 온라인 잡지이며, 학문적 요구에 맞추어 사전 심사과정이 있는 독일 교육학 분야의 최초 온라인 잡지인데 발행인을 12명 두고 있다.
http://www.medienpaed.com/

즉, 여러 사람에게 읽혀질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변하지 말아야 하며 오랜 기간 존속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McKnight(1997)에 의하면 1980년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전자잡지가 당시까지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전자형식으로 된 저널들을 우리 책상 위에서 갖는 것은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저작권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개의 경우는 전통적인 학술지나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학회 홈페이지에 다시 온라인 상으로 출판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종이 잡지와 전자 잡지가 공존하는 기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국내에서도 전자 잡지에 기고한 논문이 교수 연구업적에 반영되는 시기까지는 이러한 잡지에 자신의 새로운 논문을 기고하려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회나 학교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이러한 잡지를 통한 논문 발표가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원하는 논문들을 전자출판물 속에서 쉽고 많이 구할 수 있을 때 전자출판 방향으로 옮겨가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 잡지 구독 비용의 증가와 인터넷 매체의 기술 향상 등을 통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Hal R. Varian도 "수많은 학술적 토론이 전자 형식으로 옮겨가리라는 것은 널리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은 종이보다 값싼 생산과 배포를 제공한다. 학문 공동체는 강한 결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잡지 가격 제도는 너무 비싸 보인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잡지를 종이에서 전자매체로 옮겨가게 만들고 있다"[22]라고 주장한다. The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3권 1호 (http://www.press.umich.edu/jep/03-01/index.html)에서는 8개의 전자잡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종이 잡지가 갖지 못한 여러 장점을 보여준다. 전자 잡지가 갖는 장점과 매력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면서 이것은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로 자리잡을 것이다.

---

22) http://www.sims.berkeley.edu/~hal/Papers/publish.html(The Future of Electronic Journals)

3. 독어학 분야의 웹 출판

3.1. 전자잡지

전자잡지(elektronische Zeitschrift:e-journal)에 대한 리스트를 최초로 만든 것은 John Labovitz 인데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있다. 전자잡지이라고 불리어지는 것들을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140 여 개의 도서관이 협력하여 만든 서비스로서 웹에 있는 학술잡지에 대한 쉽고 편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이 곳에서는 개별 잡지에 대한 여러 서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잡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전체 본문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잡지와, 특정한 도서관의 사용자들에게만 개방된 것, 접근이 불가능한 잡지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것은 본문이 개방된 것들이다. 어문학 분야에서는 233개 잡지, 독어독문학과 네델란드학, 북구제국 관련 잡지가 25개 정도가 나와 있다. 각각의 잡지에 대한 여러 서지 정보 -잡지의 창간 년도, 발행방법, 구독비용과 특징- 등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어학(일반 언어학) 분야 세 잡지(3)(4)(5)와 언어교육 분야의 두 잡지(6)(7)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http://www.meer.net/~jphnl/e-zine-list/
(2)http://www.bibliothek.uni-regensburg.de/ezeit/
(3)http://viadrina.euv-frankfurt-o.de/~wjournal/deutsch/
(4)http://wjmll.ncl.ac.uk/
(5)http://www.fu-berlin.de/phin/
(6)http://www.ualberta.ca/~german/ejournal/ejournal.html
(7)http://llt.msu.edu/

1)Linguistik online(ISSN: 1615-3014)

이 잡지의 홈페이지 (3)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Linguistik online" 은 유럽 지역 도서관의 삭감되는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언어학적 연구결과들을 널리 알리고자 만들어진 잡지이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언어학의 역사, 이론, 방법론, 대화분석, 형태론과 통사론, 화용론, 의미론, 사회 언어학, 언어습득, 언어사 등이다. 잡지의 학문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개는 2명 최소한 1명의 심사자로부터 게재 가능으로 평가받아야 실릴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편집심사 위원으로 Werner Abraham(Groningen), Thomas Becker(München)를 비롯한 수 십 명의 학자들을 위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편집진들을 보강하려고 한다. 이 잡지는 국제적인 유럽 잡지임을 표방하며 따라서 모든 유럽 언어로 된 논문이 실릴 수는 있다. 그러나 논문을 읽을 수 있는 평가자가 있어야 하며 특수기호와 키릴 문자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설정을 요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이 잡지는 Viadrina 대학교의 문화학부에 그 산실을 두고 있으며 이 대학 도서관에서는 이 자료들을 확실히 보존하기 위하여 매 호에 대한 인쇄본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다. 2001년 지금 현재 "Verschiedenes/Miscellaneous" 원고 모집 중인데 지금까지 적당한 주제 아래 나올 수 없던 것들을 출판할 계획이다. 또한 "Deutsch als Fremdsprache"가 계획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잡지 4호(3/99)에서는 Heide Wegener (Potsdam)의 die Pluralbildung im Deutschen -ein Versuch im Rahmen der Optimalitättheorie 를 읽을 수 있다.

Heft 1, 1/98: Computer-vermittelte Kommunikation[23)]

---

23)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illary Bays (Paris): Framing and face in Internet exchanges: A socio-cognitive approach

Jorg Fehr (Berlin): Beobachtungen zum Kommentieren in Mailinglisten

Julia Gousseva (Tucson, Arizona): An experience in cyberspace communication: listserv interaction in a freshman composition class

Sandra Harrison (Coventry, UK): E-mail discussions as conversation: moves and

Heft 2, 1/99: Sprache und Geschlecht
Heft 3, 2/99: Lexikographie
Heft 4, 3/99: Morphologie und Syntax
Heft 5, 1/00: Gesprächsforschung: neue Entwicklungen
Heft 6, 2/00: Partikeln
Heft 7, 3/00: Sprachgruppen im Alltag

2) The Web Journal of Modern Language Linguistics(ISSN: 1461-4499)

영국의 Newcastle 대학교의 현대언어학부에 의해서 발행되는 전자잡지이다. 1호[24]가 1996년에, 6호가 2001년에 발행되었다. 이 잡지의 특징은 아직까지는 논문보다는 서평이 더 많다는 것이다. 04-05호에는 Partridge가 쓴 The Expression of passive Sense in Non-finite forms in English and German 과, Dodd의 The Relevance of Corpora to German Studies 를 읽을 수 있다.

3) PhiN(Philologie im Netz, ISSN: 1433-7177)

발행인은 Paul Gevaudan, Hiltrud Lautenbach, Peter Schneck, Dietrich Scholler 이다. 이 잡지는 언어학, 문학과 문화과학의 연구를 위한 잡지이

---

acts in a sample from a listserv discussion
Elke Hentschel (Osnabrück): Communication on IRC
Karin Wenz (Kassel): Formen der Mündlichkeit und Schriftlichkeit in digitalen Medien

24)다음과 같은 논문이 실려 있다.
Felicity Rash:Attitudes to the use of English in Swiss German advertising language.
Anke Hubner:Das Frauenbild in der Werbung und Werbesprache: Attribuierungen zur potentiellen Konsumentin.
Felicity Rash:Rauhe Männer - Zarte Frauen. Linguistic and Stylistic Aspects of Gender Stereotyping in German Advertising Texts 1949-1959.

다. 학문연계성을 중시하며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쓰여진 논문과 서평을 싣고 있다. "Forum" 에는 작은 논문이나, 토론, 인터뷰 등을 싣고 있다. 기고논문은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로 쓰여져야 하며 10줄 정도의 영어로 된 요약을 첨부해야 한다. 인용은 괄호 형식으로 짧게 한다. 1월, 4월, 7월, 10월에 간행된다. 97년에 1-2집이 출판되었으며 98년에 3-6집, 99년에 7-10집, 2000년에 11집-14집, 2001년에 15집과 16집이 간행되었다. PhiN 8/1999:10에는 김영순님(Young-Soon Kim): Hierarchie und Linearität im Kasuspartikelsystem des Koreanischen 논문이 보인다.

4) Zeitschrift für interkulturellen Fremdsprachenunterricht(ISSN: 1205-6545)

독어교육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널리 알려진 잡지로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독문학과에서 Manfred Prokop에 의해 발간된다. DaF(Deutsch als Fremdsprache)영역에서 상호문화적 관점의 논문들을 발굴하고 있다. 1권 1호가 1996년 5월 나왔으며 2호가 8월에 3호가 97년 1월에 발행되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대개 이러한 발행주기를 지켜서 2001년 1월 5권 3호가 발행되었다. Archiv가 있으며 1권부터 4권까지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목차가 있다. 또한 독일에 (8)(9)와 같은 미러(Mirror) 사이트를 만들어서 캐나다로의 접속이 어려울 때나 유럽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두고 있다.

(8)http://www.tu-chemnitz.de/docs/ejournal/ejournal.html
(9)http://dbs.schule.de/mirror/ejournal/

5)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ISSN: 1094-3501)

외국어를 여러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서 논의하는 전자 잡지이다. 내용 중에 독어 학습에 관련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일년에 1월, 5월 9월 세 차례 간행된다. 1997년 7월부터 1호[25]가 발행되기 시

작했으며 사전심사를 시행하는 잡지이다. 이 잡지는 수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와이 대학교의 National Foreign Language Resource Center, 미시건 주립대학의 Center for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의 재정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전 세계 7개 기관과 학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잡지는 제 2 언어 습득과 컴퓨터 보조 언어학습분야에서 편집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소개가 목적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의해서 언어 교수와 학습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가가 주요 테마이다. 각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 귀속된다.

이들 외에 보쿰 대학교에서 외국의 독일어 교사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발전시킨, 학생들이 만든 학생들을 위한 잡지로 punkt.de(10)가 있다. 특정한 발행 주기는 없으며 학생들의 에세이부터 지역 정보 언어학적 논문 외국에서의 독일어 학습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생들의 글을 싣고 있다.[26] 또한 이탈리아 LED Edizioni 대학교 서버에 올려져 있는 snippets 라는 전자잡지(11)가 있다. 통사론과 의미론 분야의 작은 토론을 위한 것이다.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1년에 열 번 간행되는 Glot International(12) 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것을 모으려고 시도한다. 사전에 등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

25) "언어학습과 기술: 특집호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싣고 있다.

Carol Chapelle: CALL in the Year 2000: Still in Search of Research Paradigms?

James Dean Brown: Computers in Language Testing: Present Research and Some Future Directions

Dorothy M. Chun & Jan L. Plass: Research on Text Comprehension in Multimedia Environments

Lourdes Ortega: Processes and Outcomes in Networked Classroom Interaction: Defining the Research Agenda for L2 Computer-Assisted Classroom Discussion

26) 다음 사이트에는 Fluck이 쓴 Deutschlernen im Internet mit dem E-Journal punkt.de 논문이 있다.
http://www.ualberta.ca/~german/ejournal/fluck2.htm

(10)http://punktde.ruhr-uni-bochum.de/

(11)http://www.lededizioni.it/edonline/snippets.html

(12)http://www.glotinternational.com/

3.2. 학위 논문과 연구소의 보고서

최근 독일 대학 도서관에서는 박사학위 논문들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있다. 또한 학회의 학술회의 자료나 연구 결과물이 웹 상(13)에 발표되고 있다. 베를린 대학에서는 여러 종류의 학술논문, -교수자격 논문(Habilitation), 석사, 박사학위 논문들을 호스트(14)에 모아두고 있다. 각 대학교마다 박사학위 논문의 웹 출판에 대한 규정도[27] 제안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저작권 위임 문제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Konstanzer online-Publikations-System(15)에는 2000년 6월 현재 언어학 45개, 문학 18개 수록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 목록도 (16)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13) http://www.educat.hu-berlin.de/diss_online/biblio.html (Quellensammlung zu "Dissertationen Online")

(14) http://dochost.rz.hu-berlin.de/docserver.html

(15) http://www.ub.uni-konstanz.de/kops/volltexte/

(16) http://www.arcs.ac.at/DissDB/diss/

한편 여러 대학 도서관이 연합하여 다음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 곳의 공식적 대학 노드에 독일의 Humboldt 대학이 속해 있다.

(17) http://www.ndltd.org/(Networked Digital Library of Theses and Dissertations)

---

27) 이러한 규정내용을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다.
http://www.bis.uni-oldenburg.de/copacabana/diss/regeln.html
http://www.ubka.uni-karlsruhe.de/allg/diss/ediss.html

(18) http://www.theses.org(digital library of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하노버 대학의 Networx(19) 는 인터넷상의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물을 시리즈로 출판하고 있다. 15는 Marijana Kresic의 Kommunikationstheorie und Internet 이다. 또한 IDS에서도 ORBIS(20)를 출판하고 있다.

(19) http://www.websprache.uni-hnnoverd.de/networx/

(20) http://www.ids-mannheim.de/grammis/orbis/(Online Reihe:Beiträge zur Internet und Sprache)

3.3. 출판사와 기타 출판물

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 많은 언어학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21), (22)에서는 언어학 논문의 요약을 검색할 수 있다. 각종 언어학 모임의 Proceeding을 모아둔 Linguistics Proceedings Directory(23)에서는 검색창에 특정한 단어를 입력하면 여러 화면이 나타난다. 이 나타나는 자료집을 클릭한 후 찾기 기능(Ctrl+ F)통하여 이 단어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 COLING(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SALT(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등의 학술회의 자료를 읽어볼 수 있고 검색할 수도 있다. 또한 독일 언어학 관련 학회들은 다음 (2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학회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다. 학회 활동과 관련된 자료와 학술지 목차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독일의 언어학회와 응용언어학회 등으로 연결하여 각 학회의 활동상황과 학회지 목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회가 준비중인 학술회의를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두기도 한다.

(21) http://www.blackwellpublishers.co.uk/linguist/(Linguistics Resource)

(22) http://labs.blackwellpublishers.co.uk/

(23) http://www.cascadilla.com/proceedings.html

(24) http://www.linse.uni-essen.de/links/rubriken/vereine.htm

전자우편으로 보내진 것을 다시 모아 웹에서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둔 곳도 있다. Lektoren Vereinigung Korea 는 국내 독일인 교수의 모임이다. 이곳에서는 Rundbrief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Nr. 12 (November 2000)가 발행되었다. 1998년 5월부터의 E-Mail-Infobrief "Deutsch als Fremdsprache" 내용을 웹(25)에 보관해 두고 있다. (26)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으며 (27)에서는 언어학과 논리학의 주요논문을 모아둔 Colibri 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25) http://maincc.hufs.ac.kr/~kneider/lvk.htm(Daf Szene Korea)
(26) http://www.deutsch-als-fremdsprache.de/infodienst/
(27) http://colibri.let.uu.nl/

엄밀한 의미에서 전자잡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출판된 책의 목차만을 간단히 올려놓은 것도 있으며 그 일부만을 읽을 수 있게 해둔 것도 있다. (28)에서는 미국언어학회 학회지인 Language의 목록을 1978년 자료부터 검색할 수 있으며 (29)에서는 SDV(Sprache und Datenverarbeitung)의 목차만을 읽을 수 있다. (30)에서는 JGL의 논문과 저자 목차를 (1989-98) 정리해 둔 것을 읽을 수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독일어 전공 교수들 모임에서 99년에 완성되거나 99-2000에 진행 중인 논문들과 99년 출판한 자료 등을 모아 간단한 현황을 알 수 있게 해 둔 (31)(research in germanic studies)도 있다. 이 자료 33호는 처음으로 인터넷상에서만 출판되고 있다.

(28) http://www.lsadc.org/language/
(29) http://www.linse.uni-essen.de/sdv/inhaltsverzeichnisse/jg23.htm
(30) http://www.cohums.ohio-state.edu/germanic/sgl/jouninx.html
(31) http://www.cutg.ac.uk.rigs/1999-00/welcome.htm

4. 결 론

지금까지 독어학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웹 출판을 살펴보았다. 종이 출판과 전자 출판이 갖는 각각의 장점을 살펴보았으며 독어학 분야의 전자 잡지를 몇 가지 예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교 도서관의 학위논문 전자출판 현황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당분간 학술저작물의 종이 출판과 전자출판은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이지만 간단한 논문이나 진행 중인 논문의 일부는 점차 전자출판을 통하여 다른 학자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자출판의 여러 장점들은 학문활동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전자출판의 신뢰성, 공공성, 접근성의 요건이 충족되고 교수 업적 평가의 대상 논문으로 인정이 되면 이러한 출판 형태는 더 증가할 것이다. 대학교의 학위 논문도 점차로 전자출판으로 갈 것이 확실해진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서로의 것을 공유한다는 마음가짐만 가진다면 이러한 전자출판의 형태는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인터넷이 가지는 신속성, 전파성을 바탕으로 학술논문의 전자출판은 공동토론의 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자료들이 모이는 공간 속에서 우리 독어학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 이러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대학 도서관에서도 학문분야 별로 전문 사서가 활동하여 특정한 분야의 정제된 정보를 쉽게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e-mail:mychung@dongeui.ac.kr

참고문헌

정문용: 인터넷과 독어학 연구, 독어교육 18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999.

소만섭: 컴퓨터에 의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독일의 인터넷언어자료를 중

심으로-, 독일문학, 7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0.

이정준: 컴퓨터 지원에 의한 교육과 연구: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독어독문학의 구축 및 확충, 독일문학, 73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0.

Bailey, Charles W.: Scholarly Electronic Publishing Bibliography, in http://info.lib.uh.edu/sepb/sepb.html

Fluck, Hans-Rüdiger: Elektronische Zeitschriften (E-Journals), in http://www.ruhr-uni-bochum.de/zemekop/seminar/

Kling, Rob/Makim, Geoffrey: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Continuum of electronic Publishing, i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999.

McKnight, Cliff: Electronic Journals : What Do Users Think of Them? (1997), in http://www.dl.ulis.ac.jp/ISDL97/proceedings/

Rogers, Sally A.: Electronic Journal Usage at Ohio State University, i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62, No. 1,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1.

Simanowski, Roberto: Einige Anmerkungen zur Gegenwart und Zukunft elektronischer Zeitschriften, in http://iasl.uni-muenchen.de/discuss/lisforen/simanone.htm

Yamamoto, Takeo: Conditions for Viable Scholarly Electronic Journals:
The Role of Digital Libraries, in http://www.dl.ulis.ac.jp/ISDL97/proceedings/yamamoto.html

Zusammenfassung

Web-Publikation in der deutschen Linguistik

Chung, Mun Yong(Dong-Eui Uni.)

Das Ziel dieser Arbeit liegt darin, den Bestand der wissenschaftlichen Web-Publikationen in der deutschen Linguistik darzustellen. Das Internet bietet heute für die Forschung bereits zwei der wichtigsten produktiven Möglichkeiten;namlich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Akademische Kreise haben diverse Homepages entwickelt. Der schnelle Zugang zu aktuellen bibliographischen Daten und Forschungsergebnissen hat für koreanische Germanisten einen besonders hohen Stellenwert.

Wissenschaftliches Publizieren in Form von Fachzeitschriften ist ein gutes Modell dafür. Fachzeitschriften erscheinen weltweit und relativ schnell, erreichen aber nur geringe Auflagen. Der Leserkreis ist fast identisch mit der Gruppe der potentiellen Autoren und Herausgeber.

Ein Vorteil des elektronischen Publizierens ist die Möglichkeit multimeiale Dokumente und weiterführende Hyperlinks zu integrieren. Aber die Qualität der Aufsätze kann man kaum objektiv ermitteln und nur schwer beurteilen. Elektronische Zeitschriften können sich in der Wissenschaft nur dann etablieren, wenn es gelingt, als wissenschaftliche Arbeiten von den wissenschaftlichen Kreisen oder von der Univer-waltung anerkannt zu werden.

Folgende on-line wissenschaftliche Fachzeitschriften werden hier dargestellt; Linguistik online(ISSN 1615-3014), The Web Journal of Modern Language Linguistics(ISSN 1461-4499), PhiN(ISSN 1433-7177), Zeitschrift für interkulturellen Fremdsprachenunterricht(ISSN: 1205-6545), und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ISSN 1094-3501).

1)http://viadrina.euv-frankfurt-o.de/~wjournal/deutsch/
2)http://wjmll.ncl.ac.uk/
3)http://www.fu-berlin.de/phin/
4)http://www.ualberta.ca/~german/ejournal/
5)http://llt.msu.edu/

In der folgenden Homepage kann man auch eine Quellensammlung zu "Dissertationen Online" finden.

6)http://www.educat.hu-berlin.de/diss_online/biblio.html

Eine individuelle und institutionelle Offenheit und eine nüchterne Anwendung der Materialien sind bei der Herstellung und Nutzung von Forschungsergebnissen erforderlich.